

## A Study of Disintegrated Good and Evil on K-TV drama

Kim, Min-yeong

Instructor, Hannam University, Korea

my3578@naver.com

### Abstract

**Objectives**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henomenon that the disintegrated good and evil becomes ambiguous in the detective-narrative of TV dramas. The detective-narrative deals with public power enforcing the 'law' fairly and punishing offenders without exception. But it is noteworthy that Dramas by Han Jeong-hoon, which was aired on OCN, are based on the basic narrative of "evil is killed by evil.". The fading of the dichotomy of good and evil needs to be pointed out as an important cultural sign.

**Methods** The basic grammar of detective-narratives is a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good and evil are divided, and a detective punishes the criminal. But dramas does not apply to classical detective-narrative grammar. By examining the structure of the transformed detective-drama, the hidden contradictions of the times were analyzed.

**Conclusions** In these dramas, the disintegrated good and evil disappears. Vampires and prosecutors combine, or crooks and civil servants are on the same side. Those who own capital and power are committing legitimate crimes, but punishment is impossible by 'law'. The underlying social evil is not a vampire or a criminal, but a criminal who causes a crack in the social system under the guise of law is a powerful person(capitalist).

**Keywords** disintegrated good and evil, detective-drama, 〈Vampire prosecutor〉, 〈squad38〉

---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2.12.312.005

Received: Nov. 10. 2022 ; Reviewed: Nov. 30. 2022 ; Accepted: Dec. 10. 2022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 K-TV 드라마에 나타난 전복된 선악의 의미 연구

김민영

---

### 목 차

1. 서론
  2. 윤리적 타자로 재현된 뱀파이어: <뱀파이어 검사> 시즌1
  3. 근본적인 악덕의 심판자: <38사기동대>
  4. 결론
- 

### 1. 서론

‘법’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정착된 이후 태동한 문학 형식인 추리 서사는 ‘범죄의 발생’이 서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살인을 비롯한 폭력을 범죄라는 범주에 넣은 것은 현대 사회에 들어온 이후이다.<sup>1</sup> 부르주아 계급이 권력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지배 전략이 요구되었고, 점차 근대 자본주의의 모습을 갖춘 사회가 증가함에 따라 추리 서사의 영역은 확대되었다. 사회 구성원들은 범죄자에게 자신의 재산이 뺏기지는 않을지, 자신의 신체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지 등에 관한 공포가 증가했고, 이와 같은 사회 현실을 반영하는 문학 형식으로 추리 서사가 대중의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법이라는 기준틀에 근거하여 이에 벗어나거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범죄적 행위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인식의 변화가 추리 서사의 자양분이 된다. 이성중심주의 혹은 계몽주의에 의해 구성된 법에 따라 인간의 사회 체제는 질서정연하게 유지되어야 하므로, 안정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굳건한 체제의 균열을

---

1 피테르 스피렌부르크, 홍선영 옮김(2011), *살인의 역사*, 서울: 개마고원, 10.

일으키는 범죄자에게는 국가적 차원의 강제력이 동원되었다. 냉철한 이성에 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추리 서사는 대중적인 장르로 부상한다.

한국에서 추리 서사의 계보는 서양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0년 이전 추리 서사는 주로 소설, 영화 영역에 국한되어 대중들에게 선보였으며, TV드라마에서는 대표적인 주류 장르인 멜로드라마와 역사드라마의 자리를 넘어설 수 없었다. 심지어 모방범죄의 우려 때문에 TV에서 추리 서사의 방영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추리 서사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등장할 수밖에 없는 범죄 행위나 범행도구 등을 청소년이 모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sup>2</sup> 따라서 한국 TV드라마에서 최장수 주간극이라는 기록을 보유하며 1970년대 한국의 대표적인 ‘수사드라마’<sup>3</sup>로 불리는 〈수사반장〉을 제외하고 추리 서사를 다루고 있는 주목할 만한 작품은 부재했다.

〈수사반장〉은 과학수사보다는 “인정 수사극”에 역점을 두고 경찰의 신속한 사건 해결을 바탕으로 범죄자의 검거 과정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경찰의 모습을 제시했다.<sup>4</sup> 이를 통해 법에 의거하여 범죄를 응징하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수사반장〉 이후 1990년대, 2000년대에도 추리 서사가 TV드라마 영역에 나타났지만, 추리 서사가 지니고 있는 장르적 특질이 ‘일상성’을 기저로 하는 TV라는 매체적 특성과 대척적일 뿐만 아니라, 작품의 주제나 완성도 측면에서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붙잡아 두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2005년을 기점으로 그간 멜로, 역사 등의 주축 장르에 밀려 주변부에 머물던 TV드라마 시장에서의 추리 서사는 양적·질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며 본격적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진부한 삼각관계 혹은 재벌의 등장과 같은 친편일률적인 신데렐라 서사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 시청자들의 욕망을 반영하여 작가의 세계관을 고수한 추리 서사가 등장한 것이다. 자본 권력과 결탁한 공권력 혹은 재벌의 비리 등과 같이 사회 고위층이 범죄자로 설정되어 부덕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응징하는 서사로 전개되는 〈변호사들〉(2005), ‘복수 3부작’이라 부르는 〈부활〉(2005), 〈마왕〉(2007), 〈상어〉(2013) 등과 같은 작품들이 마니아 층을 중심으로 부상했다. 이 작품들은 여전히 주류 장르에 밀려 시청률이 담보되지 않았지

2 신상일·정중현·오명환(2014). *한국 TV 드라마 50년사*, 서울: (사)한국방송실연자협회, 225.

3 아직까지 ‘추리’ 드라마, ‘수사’ 드라마 등의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는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 둘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한국에서 제작 및 방영되는 일련의 추리물을 지칭할 수 있는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4 위의 책, 131-133.

만, 작품의 질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대중성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이들은 단독으로 추리적 특질만을 고수하기보다는 <거침없이 하이킥>(2006), <한성별곡>(2007), <별순검>(2007), <너의 목소리가 들려>(2013), <귀신 보는 형사 처용>(2014) 등의 작품에서 멜로, 역사, 판타지, 코미디 등 타장르와 자연스러운 결합을 시도하며, 다양한 유형으로 자신만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일부에서는 한국 TV드라마의 추리 서사가 외국영화나 <CSI>와 같은 미국 TV드라마에 비해 서사적, 영상미학적인 측면에서 뒤처진다고 폄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문제적 상황을 직시하는 작품들이 등장하여 작품의 완성도와 시청률에서 대중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추리 서사는 양적·질적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도 TV드라마 영역에서 추리 서사는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소설, 영화, TV드라마 등에서 재현되는 추리 서사의 문법은 선한 세력인 정의로운 영웅이 악한 기득권층을 징벌·응징하는 내러티브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선보인 TV드라마의 추리 서사(이하 '추리드라마')는 대부분 사회 고위층(권력자 혹은 자본가)을 범죄자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의 범죄적 행각을 밝히고자 하는 선한 영웅은 사적 복수에 의한 것이든, 검/경찰로서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 것이든 '법은 만인 앞에 공평·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현실 세계에 구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sup>5</sup> 선한 영웅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몸을 감추려 하는 권력자(혹은 자본가)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은밀히 결탁된 그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리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법 질서의 정의를 향한 시청자들의 욕망이 반영되어 사필귀정 혹은 권선징악의 시적정의를 재현된 작품들이 향유되었다.

이상과 같이 대중문화에서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극대화시켜서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 것은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로도 파악할 수 있다. 반공국가였기 때문에 마니교적 이분법의 구분이 유익하고 편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는 현실의 모순,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원인 자체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봉합효과, 즉 실제 현실은 변화할 수 없지만 판타지를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는 서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로를 선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2010년 이후 OCN이 '영화 전문 채널'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범접할 수 없는 장르물의 대가로서 TV드라마 채널로 대중에게 각인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

5 김유미(2010). "2000년대 텔레비전 추리 드라마의 특징 -심리적 요소의 활용을 중심으로", *어문논집* 61, 204.

있다. 일반적으로 TV드라마는 공공재적 특성 때문에 새로운 주제를 시도하기보다는 주로 보수적인 서사를 담아낸다. 이에 반해 케이블 방송인 OCN은 지상파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소재와 주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고 세련된 영상미까지 더해져서 TV드라마 시장에서 추리 서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었다. 이러한 TV드라마 시장의 변화에 맞춰 보수적으로 권선징악의 주제를 고수했던 추리드라마의 주제적 측면에도 괄목할 만한 현상이 등장한다.

2010년 이후 루카치가 상상했던 총체성을 가진 세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착함에 따라 국가의 안전보장망이 해체되어 사회 구성원들은 각자도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정치·문화 등은 그들에게 더 이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선사하지 못한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법에 의한 사회 정의 구현은 현 시대의 정신과 대중의 욕망을 대변하지 못하고, 사회 구성원들은 인간의 이성 속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고자 하는 것은 위로가 되지 않고 부질없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 결과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등 대중문화에서 선과 악의 구분이 해체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특히 기존의 추리 서사 구조에서 분명히 구분됐던 선악의 구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절대 선인과 절대 악인의 이미지가 혼동 혹은 전복이 극대화된 추리 서사가 등장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분명 마니교적 이분법이 희미해지는 것은 사회·문화적 징후로 짚어봐야 하기 때문이다.

OCN의 추리드라마 중 한정훈 작가의 일련의 작품들에서 선악의 이분법 해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2011년 <뱀파이어 검사> 시즌1을 시작으로 2018년 종영한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까지 한정훈 작가의 추리 서사는 전통적인 선악의 개념을 전복시킨다. TV드라마 세계의 이데올로기는 현실 세계의 그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선악의 해체적 사유를 살펴보는 작업은 우리가 머무는 이 시대가 선과 악이 뒤섞여 있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덧붙여 산업자본주의에서 도덕적·윤리적 체제가 바뀌어 내 편과 내 편이 아님이 더 이상 선과 악으로 치환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선악이 뒤섞인 후기 산업사회의 시스템의 주체화 과정의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윤리적 타자로 재현된 뱀파이어: 〈뱀파이어 검사〉 시즌1

뱀파이어 전설은 대중적 작품인 브람 스토커(Bram Stoker)의 소설 『드라큘라』(Dracula, 1897)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팬덤이 형성된 〈트와일라잇〉, 박찬욱 감독의 〈박쥐〉 등의 작품과 같이 드라큘라 원전에 그치지 않고 뱀파이어를 모티프로 하는 영상 서사물이 제작되었다. 뱀파이어라는 서양의 문화상징이 젊은 세대들에게 익숙해지면서, 한국 콘텐츠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뱀파이어 이야기의 생명력은 이질적이고 불길한 타자성(他者性)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하고 매혹적인 특성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뱀파이어는 고딕풍의 성(城)이나 지하묘지를 벗어나 일상적 삶의 공간으로 스며들면서, 위험하고 해로운 것, 멀리해야 하는 것들의 총체에서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존재로 변모하였다.

클로드 르쿠퇴에 의하면, 뱀파이어는 “죽은 자도 아니고 살아 있는 자도 아닌 존재, 저승의 계단을 드나들면서 밤이나 낮이나 저승에서 나와 사람들 곁에 머무는 존재, 증오와 사랑, 선과 악 같은 대립적인 것을 합하는 존재, 모든 규칙을 위반하는 존재, 구세주이자 지옥의 사자”<sup>6</sup>로 정의된다. 절대적 ‘선’인 신에 대립되는 악마라는 존재로 흡혈의 특성을 가진 뱀파이어의 이미지는 신화시대 이후에도 인간이 혐오스럽고 추악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반복 출현하면서, 이성·진리·선을 추구하며 윤리적 위상의 인간과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타자로서 논의되었다.<sup>7</sup> 뱀파이어는 단선적인 살육의 폐쇄 고리에 갇힌 존재들로서, 살아있는 인간의 피를 마셔야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악’의 존재이다.<sup>8</sup>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중간자적인 존재, 다시 말해 살아있는 시체로 인간의 피를 들이마시는 뱀파이어는 결코 인간과 동일화할 수 없는 타자(他者)이다. 근대성의 상징인 이성과 합리주의가 당연히 타도해야 할 전근대적 광기의 표상인 것이다.

뱀파이어는 합리적 이성이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들을 공포의 이미지로 둔갑시키고 ‘우리’와는 다른 괴물로 배척하였다. 이는 데카르트에게서 비롯된 근대의 합리적 주체관을 바탕으로 ‘괴물, 여성’ 등을 타자로 인식하고 그들을 배타적으로 보려는 억압적 구조에 의지하고 있던 결과이다. 인간만이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우리’ 이외의 존재는 비정상이며 악한 존재로 소외시키고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6 클로드 르쿠퇴, 이선형 옮김(2002). *뱀파이어의 역사*, 서울: 푸른 미디어, 243.

7 장 마리니, 장동현 옮김(1996). *흡혈귀*, 서울: 시공사, 13-96.

8 이영수(2011). “뱀파이어 모티프 영상 서사의 공간 분석”, *문화과 영상* 12, 195.

타자는 인간 심연에 존재하는 균열의 증거이며, 친숙함과 낯설, 같음과 다름 등과 같이 이분화하여 낯설고 다른 것들을 배타적인 타자로 인식하며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함으로써, 나를 동요시키는 이질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며 자기 자신이 타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와 ‘그들’을 철저히 구분짓는 경계가 점차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괴물을 신성시하거나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경향들과 부딪혔을 때 우리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보고 의식이 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 새롭게 진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는 뱀파이어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적용된다. 뱀파이어는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를 빌어 오히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한다. 뱀파이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이지만, 그것 역시 인간의 본성과 다를 바 없음을 수용하여, ‘우리’와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다른’ 존재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척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은 인간과 뱀파이어의 경계를 분명치 않고 모호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이분법 해체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 <박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변화는 <뱀파이어 검사> 시즌 1·2, <밤을 걷는 선비>, <오렌지 마말레이드>, <블러드>, <뱀파이어 탐정> 등 TV드라마에서 뱀파이어를 다루는 양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뱀파이어 검사> 시즌 1은 국내 최초 뱀파이어 범죄 수사극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sup>9</sup> ‘뱀파이어물’과 ‘수사극’이 접목된 새로운 장르의 범죄 수사극으로 방영됐다. 제목부터 모순적인 <뱀파이어 검사>는 그간 문학작품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의 존재로 설정되어 철저하게 응징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뱀파이어가 법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검사로 등장한다.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라는 초능력을 지닌 뱀파이어 검사가 피를 통해 피해자의 시선으로 죽기 직전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범죄 사건의 실마리를 찾아 부조리한 사회 권력층을 응징한다. 역설적이게도 법치국가에서 악의 세력에 속하는 범법자가 선한 가면을 쓰고 있는 진정한 사회악을 처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다.

민태연(연정훈 분) 검사는 인간의 피를 탐하는 악한 존재인 뱀파이어가 아니라 정의의 대명사인 검사로 등장하면서 여타의 추리드라마에서 존재하던 선악의 구조에서 벗어난다. 가해

9 양진아·한정훈·박형진 극본, 이승훈·김병수 연출, OCN, 11회, 2011.10.02.~2011.12.18.  
 <뱀파이어 검사> 시즌1은 방송기간 동안 케이블 TV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고, 평균 시청률 3.34%, 케이블 드라마에서는 최초로 최고 시청률 4.3%(AGB닐슨 미디어리서치, 케이블 유가구 기준)을 기록하였다.

자로서 악한 뱀파이어와 피해자로서 선한 인간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전복·해체한 것이다. 공존할 수 없는 ‘뱀파이어’와 ‘검사’를 동일한 인물로 투사함으로써 그의 존재 자체가 딜레마이다. 냉철한 이성에 의해 사회악을 차단해야 하는 검사이지만 인간의 피를 보면 뱀파이어의 본능이 살아나기 때문에, 민태연은 끊임없이 욕망의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검사로서 민태연은 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 사이코메트리(psychometry)라는 초능력을 이용하는데, 카메라는 시간을 역순으로 담아내며 그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흥건하게 흘러있던 피살자의 핏방울들이 선명하게 방울진 모습으로 변하는 장면이나(장면1, 2) 민태연이 피살자의 혈액 샘플을 마시는 장면 등을 통해 보통의 검사처럼 법을 수호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범죄자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 초능력을 사용하지만,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던 피해자의 이야기를 소환하고 그들의 죽음을 온전히 애도하기 위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범죄자를 처벌하며 ‘수사 이야기’를 구성한다.



(장면1)

(장면2)

(장면3)

문제는 동전의 양면처럼 검사의 본분과 동시에 뱀파이어로서의 본능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민태연이 뱀파이어의 본능을 드러낼 때 카메라는 초점을 불분명하게 하고(장면3) 민태연이라는 피사체를 분열되고 왜곡된 형상으로 그려낸다. 이는 탐욕이 가득한 뱀파이어의 모습을 은폐하고 위장한 검사 민태연의 이중성을 포착하기 위함이다. 그가 뱀파이어와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어느 한쪽을 배제하거나 동화시키지 않고 이질적인 차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놓여 있는, 낯설고 왜곡된 인간임을 말해준다. 후기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생존이 목적이 되어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태연은 욕망의 대상인 인간의 피를 빨지 않고, 공존을 선택한 “채식주의자 뱀파이어”<sup>10</sup>라 할 수 있다.

10 임옥희(2010). *채식주의자 뱀파이어-폭력의 시대 타자와 공존하기*, 서울: 여이연, 239-248.

사회는 끊임없이 타자의 얼굴을 지우려고 한다. 그러나 모든 타자는 우리 초상의 또 다른 모습이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된 이 시대는 각자도생의 삶을 살아야 하기에, 누구든 부당한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불안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심지어 폭력이 제도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을 정의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에서 윤리적 면모를 지닌 뱀파이어의 등장은 수용자의 욕구를 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회 구성원의 공포와 분노는 이들을 둘러싼 본질적인 맥락과 근본적인 불의로 향하게 된다. 뱀파이어와 검사의 경계에 머무는 민태연은 현재 한국 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 즉 불안 및 공포, 혐오나 분노의 감정이 일상을 잠식하고 더 이상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하며 무너져버린 공권력에 대한 좌절감 등 사회 정의에 대한 요구 및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뱀파이어의 서사의 변주와 진화는 탈신비화·세속화의 한 과정이며, 뱀파이어는 더 이상 악마, 사악한 존재, 해로운 것이 아니다. 인간이 두려워했던 초자연적인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일면으로서 부활한 것이다.

### 3. 근본적인 악덕의 심판자: 〈38사기동대〉

국가가 해체되어 버린 현재 사회 속에 내던져진 사회 구성원들은 스스로를 지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이에 국가 공권력을 향한 신뢰는 부재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옳음이 곧 선이며, 그름이 곧 악’이라는 공식이 명명될 수 없는 사회 공동체는 이분법적인 사고의 흐름이 적용될 수 없다. 근대사회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사람이 이웃과 갈등하게 만드는 모든 호전성, 죄악, 폭력의 이미지를 아웃사이더에게 투사하여 해로운 타자를 생성했다. 하지만 현재는 확연히 나뉘어지는 ‘우리’와 ‘타자’, 즉 선과 악의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수용한다. 낯설고 배타적인 타자로 인식됐던 범법자들의 정체성을 통해 윤리적·도덕적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멜빈 러너가 처음으로 제창한 “공정한 세상 가설”은 이 사회는 정의롭고 공평·공정하기 때문에 역경 속에서도 꾸준하게, 성실하게 노력을 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일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믿음이 모이면 사회 구성원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할 수 있다.<sup>11</sup> 불행하게도 이 가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현실화될 수 없다. 법으로 규정된 계급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는 철저한

계급주의 사회이다. 금수저, 은수저와 같이 태생부터 계급이 나눠진 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이 시대에 정직한 노력의 결실을 기대하는 이는 전무하다. 또한 “공정한 세상 가설”의 주장 중에 선한 행동을 한 결과로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위협에 처했을 때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미 정치나 권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믿음은 어불성설이다.

더 이상 정직이나 노력과 같은 행위는 미덕이 아니고, 심지어 한국 사회에서 정의라는 추상적 가치는 상품화되어 소비되고 있다. 정치·경제를 주도하는 권력자(자본가)가 부를 쌓는 과정이 결코 투명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법’을 집행하는 검찰·경찰과 결탁하여 ‘법’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공평한 잣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정의’라는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심각함 자체, 정의의 위기에 대한 논쟁 자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며, 정의 없는 현실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정의에 관한 윤리적 가치는 누구나 인정하지만, 일상 속에서는 힘을 지니지 못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국이다. 독재정권과 그에 맞서는 민주화 투쟁기를 거치며 민주주의 쟁취는 정의의 구현과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 IMF로 대표되는 경제 위기가 도래하고 신자유주의가 일상을 점령하면서 사회 구성원은 정의의 가치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정의 구현이 우리 사회에 닥친 경제·사회·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악한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와 범법 행위가 용납됨에 따라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이들에 저항하는 정의로운 영웅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정의 구현이나 이상 실현에 대한 불신만이 팽배한 공동체로 변모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sup>12</sup>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납세의 의무를 등한시하며 위장전입이나 탈세와 같은 위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38사기동대><sup>13</sup>는 사회가 정해놓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세금 징수 공무원 백성일(마동석 분)이 사기꾼 양정도(서인국 분)의 도움으로 이들을 응징하는

11 야마구치 슈(2019).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서울: 다산초당, 215-229.

12 <38사기동대> 기획의도 중. <http://program.tving.com/ocn/taxteam38/1/Contents/Html>.

13 한정훈 극본, 한동화·황준혁 연출, OCN, 16부작, 2016.06.17.~2016.08.06.

것이 주요 내러티브이다. 이 작품은 전술한 추리 서사의 문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지만, 탐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백성일과 양정도 일당이 마진석(오대환 분)을 기점으로 그 뒤에 숨어 끊임없이 범죄 행각을 조장하는 방필규와 최철우의 존재를 밝혀내는 서사 구조, 즉 악의 근원을 밝혀내고 그들을 응징·처벌하기 때문에 변주된 추리 서사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38사기동대〉는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사회 규범을 어긴 범죄자와 같은 편에 선다는 것부터 모순적이다. 여전히 선으로 악을 처단할 수 있다는 믿음을 고수하는 천성희(최수영 분)가 음지의 세력과 결탁하려는 백성일에 우려하는 지점 또한 이것이다. 백성일이 손잡으려 하는 인물들은 양지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백성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근원적인 악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의 민낯을 확인하고 양정도를 위시한 범법자들과 손을 잡는다.

양정도 일당은 ‘선한 악당’이 되어 숨겨지고 은폐된 근본적인 범죄자를 색출한다. “복종하지 않고 권력의 테두리 밖에 있는 사람들”, 또는 “잠재적인 권력의 행사자들, 즉 잠재적인 반란군”<sup>14</sup>이 되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견고한 권력자의 카르텔을 뒤흔든다.

**양정도** 백성일 아저씨 좀 불쌍하지 않아요? 어찌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 살 부대끼게 되긴 했어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야? 온갖 법 다 어기고 사는데 이번에는 법을 지키려고 일을 했잖아요. 나는 공사 끝내고 나서 이런 기분 처음 들던데. 재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분 들게 해준 백성일 아저씨 한 번만 더 도와주자구요.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법률에 의하여, 이거 한번 지켜보겠다고 우리 같은 사기꾼들이랑 손까지 잡았는데, 우리는 제자리 돌아가도 아저씨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 지키고 있어야지. 그래야 그게 돌아가잖아. 조세정의. (6회)

선한 악당은 안정된 사회 질서가 구축된 공동체에서는 출현할 필요가 없다. 이들은 권력자에게는 통제불가능한 무법자이지만, 대중에게는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내는 영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합법적 범주로 묶을 수 없는 선한 악당의 행위는 사회·정치적으로 저항의 한 단면으로 해석해야 한다. 사회 기준,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정의롭지

14 에릭 홉스봄, 이수영 옮김(2004). *벤티드*, 서울: 민음사, 38.

못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설정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법으로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볼 수 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57억의 세금이 체납된 주류 회사 대표 마진석(오대환 분),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500억 상당의 고액 체납 중인 방필규(김홍파 분), 자신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으니 세금납부를 할 이유가 없다는 1000억 고액 체납자 최철우(이호재 분)의 행각은 자기반성은커녕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사회 구성원들을 잇속을 챙기지 못하는 한낱 일개미로 만들어버린다. 욕망으로 진력하는 인물 군상들은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기 위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어두운 심연이자 결핍, 공허이다. 욕망의 늪에 빠지면 이성은 마비된다.”<sup>15</sup> 그 결과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잉된 욕망의 양상을 보이고 타인을 기만하며 폭력으로 치달는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기만적 행위와 공권력의 야합이다. “권력을 독점한 개인의 의지가 공식 규범에 우선한다. 이러한 관행은 인정된 수단, 즉 공식 규범에는 위배되지만 집단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관행화된다. 따라서 공식 규범보다는 권력을 갖고 권력을 독점한 소수”<sup>16</sup>와 결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권력이 이익집단과 손쉽게 결탁하려는 속성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사회적 지위 상승과 이익을 위해서 서원시장과 세금징수국 국장은 백성일을 이용하고,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 하는 형사는 불법 브로커를 자처한다. 이들이 사적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며 최철우와 같은 범죄자를 은폐했기 때문에, 최철우는 절대적 권력자로 군림할 수 있던 것이다.

## 4. 결론

범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공존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가 사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부터 범죄가 발생하였고, 그 수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강력범죄들로 인하여 국민 개개인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요즘, 국가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각종 범죄에 능동적

---

15 조홍길(2010). *욕망의 블랙홀*, 서울: 한국학술정보, 179.

16 김준호(2012). “한국사회문제의 커다란 밑그림”, *범죄와 비행* 3, 48.

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이미 무너져 버린 이 시대의 공권력이 다시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되찾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추리는 실마리를 통해 억압된 인간 의식의 심연, 숨겨진 범죄의 실체·사건의 원인 등 비가시적인 세계의 실재를 가시화하려는 객관적·이성적 산물이다. 추리드라마는 국가 안전망이 해체됨에 따라 공동체가 와해되고 개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현재의 폭력성을 소환하며, 은폐된 범죄를 밝히려는 측과 범죄를 은폐하려는 측의 첨예한 대립을 드러낸다. 고전적 추리 서사는 경제적·사회적 약자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지만, 지금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 공권력과 자본 권력이 결탁하여 합법으로 위장한 채 범죄를 일으키는 사회 고위층이 범죄자로 등장한다. 더 나아가 선악의 이분법적 구도가 해체되면서 절대적 선인·악인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악을 악으로 응징’하는 전복적인 변화가 선악의 경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분열시킨다.

한정훈 작가의 일련의 작품들은 이상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양립할 수 없는 ‘뱀파이어’와 ‘검사’를 동일선상에 두거나 범법자와 같은 편인 공무원을 설정하여 근원적인 사회악인 권력자(자본가)를 응징한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에서 늘상 ‘법’은 가진 자들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됨을 알기에,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판타지적 시적 정의를 보여주며 대중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V드라마가 당대의 사회·문화와 긴밀하게 연관되고 사회 구성원의 감정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동시대 대중의 욕망을 담아낼 수 있던 것이다.

## [References]

〈Vampire prosecutor〉

〈squad38〉

Kim, Joon-ho (2012). “The sketch of social problems in korea”, *Crime and delinquency* 3, 27-50.

Jo, Hong-gill (2010). *Black Hole of Desire*, Seoul: KSI.

Hobsbawm (2004). *Bandits*, Seoul: Minumsa.

Im, Ok-hee (2010). *Vegetarian Vampire: Coexistence with Others in the Age of Violence*, Seoul: Yeoyeon.

Yamaguchi (2019). *Philosophy of Arms: Key Concepts of Philosophy and Ideas for Surviving Life 50*, Tokyo: Kadokawa.

- Claude Lecouteux (2002). *History of Vampires*, Seoul: Blue Media.
- Marigny, Jean (1996). *Vampire*, Seoul: Sigongsa.
- Lee, Young-soo (2011). "An Analysis about the Space in Visual Contents of Vampire Motif", *The Journal of Literature and Film* 12, 191-209.
- Kim, Yoo-mi (2010). "A Study on distinctive features in mystery TV drama of 2000's",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61, 191-224.
- Petrus Spierenburg (2011). *History of murder: personal violence in Europe from the middle ages to the present*, USA: Polity.
- Shin Sang-il, Jung Jung-heon, and Oh Myung-hwan (2014). *50 Years of Korean TV Drama*, Seoul: The Korea Broadcasting Performers Association.

## K-TV 드라마에 나타난 전복된 선악의 의미 연구

김민영

한남대학교 교양대학 강사

###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글은 TV드라마의 추리 서사에서 선악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현상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추리 서사는 공권력이 공정·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여 범법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을 다룬다. 하지만 OCN에서 방영된 한정훈 작가의 작품의 일련의 작품은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라는 기본적인 내러티브로 삼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선악의 이분법이 희미해지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징후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방법** 추리 서사의 기본 문법은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탐정이 범인을 처벌하는 서사구조인데, 이 작품은 고전적 추리 서사의 문법이 해체되어 반영되고 있다. 변모된 추리드라마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은폐된 시대적 모순을 분석해보았다.

**결론** 이 작품들은 절대 선과 절대 악의 구분이 사라지고, 타자의 범주였던 ‘백파이어’와 공권력의 상징인 ‘검사’가 결합하거나, 사기꾼의 도움을 받아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등장한다. ‘자본과 권력’을 소유한 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합법적인 범죄를 일삼고 있지만, ‘법’에 의해 합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근원적인 사회악은 백파이어나 범법자가 아니라 합법을 가장하여 사회 체제의 균열을 일으키는 범죄자는 권력자(자본가)임을 밝히고 있다.

**핵심어** 선악의 전복, 추리드라마, 한정훈 작가, (백파이어 검사), 〈38사기동대〉

이 논문은 2022년 11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12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